

무역분쟁 악재... 지수 하단 2250, 저가매수 노려볼 만

전문가 증시 진단

“美中 무역전쟁 장기화 조짐
글로벌 증시 긴장감 확대
보호무역 등 악재 소멸盼
하반기 주가 반등 기회로”

미국의 보호무역으로 시작된 글로벌 무역분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 증시가 휘청이고 있다. 특히 한국 증시는 연 저점을 경신하며 각종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투자'보다는 '관망'할 것을 조언했다. 물론 현재 코스피지수가 기업 실적이나 청산가치보다 낮아져 종목별로 저가 매수 기회로 접근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3월 코스피지수는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전일 대비 1.22포인트 상승한 2272.76에 장을 마감했다.

◆ 무역전쟁 마무리까지 하락 지속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장의 원인으로 '무역전쟁'을 꼽았다. 생각보다 본격화·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사장은 “무역전쟁 우려로 증시가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유럽까지 가세하고, 관세 품목도 점차 확산되고



이재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



오택동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김형렬 교보증권 투자전략팀장



준리 메리트자산운용 대표

있다. 또 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탈퇴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재차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중국의 1차 관세부와 발표 시한인 오는 6일까지 증시의 지지부진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봤다.

이재원 사장은 “관세부와 시한이 다가오며 미국과 중국이 뚜렷한 협상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중국 정부의 추가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긴장감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협상 시한에 맞춰 대두 등 기준에 예고했던 품목 뿐만 아니라 미국산 자동차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

할 계획을 밝혔다. 현실화되면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는 40%에 달한다. 아울러 유럽연합(EU) 회원국들도 3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추가적인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무역분쟁의 범위가 커지는 양상이다.

오택동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하락장을 만든 세가지 변수로 ▲비용면인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원유시장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 상승에 따른 긴축 가속화 우려 ▲치킨게임으로 격화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등을 꼽았다. 특히 현재의 하락장은 무역분쟁에서 촉발됐다는 분석이다.

오 팀장은 “과거 보호무역이 초래했던 글로벌 경기침체를 알기 때문에 설마 했던 상황이 시간이 흐를수록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 “저점을 기다려라”

현재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2300선을 하회하고 있다. 2300포인트는 심리적 저항선이기 이전에 12개월 후행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 1배 수준이다. 이는 현재 한국 주식시장이 상장사 청산가치보다도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강재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갑자기 부도가 나지 않는 한 현 수준에서 주식을 매수하면 차익을 남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정보기술(IT)섹터의 주가수익비율(PER)은 6.7배에 불과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10배에도 미치지 못해 상당히 저평가 받고 있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김형렬 교보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국

내 IT섹터 밸류(가치)가 6.7배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한국기업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또 이 대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은 과도하다”며 “무역분쟁이 마무리되면 크게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분쟁이 마무리되면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저가매수의 기회를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김 팀장은 “하반기 증시의 기회요인은 ‘악재의 소멸’이라면서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연방준비위원회(Fed)의 금리인상 등 악재가 소멸되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하단은 2250선으로 본다”면서 “기업 이익전망 하향에 대한 우려는 너무 심급하고, 매크로 상황은 수출기업에게 우호적이다. 하단까지 주가가 내려오면 공격적인 매수 전략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준리 메리트자산운용 대표는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 인상과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 걱정되지만 그렇다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며 “금리 인상 시기인 만큼 빛보다는 자산이 많은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1면 '흔들리는 검찰 권위'서 계속

수사기관의 압색 좀 더 신중해야

이러 “휴대전화와 PC 등 개인정보 처리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생산성 저하로도 연결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좀 더 신중히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업무마비에 생산성 ‘뚝’

사정기관 출신 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요즘은 압수수색영장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수사하지만, 해당 장소와 물건을 ‘사무실 전체’나 ‘자동차’ 식으로 적는다”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못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검경의 책임의식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 경찰이 고검 산하 위원회에 영장 청구 재검토를 요구하는 식으로 나간다면, 전문성을 가진 검찰의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다”며 “각자 생업이 있는 위원들이 위원회에 올라오는 수많은 이의제기 사항과 청구서를 과연 검찰처럼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살펴볼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정부에 수많은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각 부문을 책임질 기관들이 제 할 일을 떠넘기는 수단으로 전략할 수 있다”며 “특히 검찰 같은 기관의 책임감마저 결여되는 구실이 될 수 있어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경찰이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불복할 길을 만들어 놓으면, 20%에 이르는 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범중 기자 joker@

국제유가 상승에 공업제품·교통물가 들쭉

통계청, 소비자 물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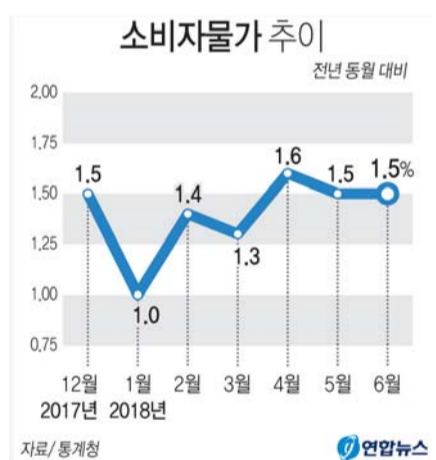
소비자물가지수 작년비 1.5% ↑
평균 휘발유값 / 당최고 2229원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석유류 가격이 크게 뛰며 공업제품·교통물가까지 들쭉이고 있다. 다행히 밥상물가를 끌어올렸던 채소와 축산물 가격은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5% 올랐다.

작년 7~9월 2%대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 1%대(1.8%)에 진입하고서 9개월째 1%대에 머물러있다.

이처럼 9개월 연속 2%를 밑돈 것은 2012년 11월~2016년 12월(4년 2개월)이



후 처음이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에는 석유류 영향이 컸다.

석유류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 뛰며 전체 물가를 0.44%p 끌어올렸다. 이번 오름폭은 작년 4월(11.7%)이

후 14개월 만에 가장 컸다.

특히 경유는 12.3% 올라 역시 작년 4월(14.1%)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석유류 가격 상승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은 국제유가가 통상 2~4주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당 1608.03원이고 최고가는 2229원이었다. 경유는 평균 1408.58원, 최고가 2067원이다.

유가 상승 여파로 공업제품(1.8%)과 교통(4.1%) 물가도 많이 올랐다. 교통비 물가는 작년 5월(4.5%) 이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밥상물가 상승을 이끌던 농·축·수산물 상승세는 다소 꺾였다. 농산물은 6.7% 올

라 앞선 5월 상승률(9.0%)에 비해 둔화했다. 채소류 가격은 6.4% 상승해 5월(13.5%)보다 오히려 크게 낮아졌다. 축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7.4% 내리며 전체 물가를 0.20%p 낮췄다.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상승률은 1.8%로 올해 1월 -0.6%를 기록한 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달걀은 42.0%, 돼지고기 7.1%, 닭고기 12.7%, 수박 9.6%, 양파 14.9% 각각 하락했다.

특히 5월 가격 상승률이 59.1%였던 감자는 출하량이 늘면서 6월엔 8.1%로 낮아졌다.

제고량이 부족한 쌀은 가격이 1년 전보다 34.0% 뛰었다. 작년 11월(12.5%) 이후 8개월째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생산량이 감소한 낙지 가격은 43.1% 올라 오히려 올랐다.

채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4% 올랐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손영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시총회에서 행사장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중 경총 부회장 해임안 가결

총회 233명 중 224명 찬성
취임 석 달 못 채우고 퇴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거취 논란이 불거졌던 송영중 상임부회장을 해임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송 부회장 임면(해임)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233명 중 224명이 찬성에 가결, 송 부회장은 지난 4월 초 취임 후 석 달을 채우지 못한 채 중도퇴진하게 됐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경총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경총은 직원 간 분열 조장과 파행적 사무국 운영, 경제단체의 정체성에

반하는 행위와 회장 업무지시 불이행, 경총의 신뢰 및 명예 실추 등을 사유로 송영중 상임부회장 해임을 제안했고 표결 결과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총회에는 전체 회원사 407곳 중 233곳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170개 사가 회장에 대해 의결권을 위임했고 63개 사가 회의에 참석했다.

송 부회장 해임안은 이미 회의 전부터 통과가 유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회장에 대해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사만 170곳에 달해 안전 통과를 위한 요건인 ‘회원사 과반 참석에 관한 찬성(103개 사)’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날 경총은 바로 차기 부회장 선임을 위한 전형위원회를 구성했다. 총회에서는 전형위원회에 상임부회장 선임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전형위원회는 손 회장을 비롯해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조규옥 전방 회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백우석 OCI 부회장, 김학권 인천경총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 박복규 경총 감사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손 회장은 “다음주에 다시 전형위원회를 열어 차기 부회장 후보를 추천할 것”이라며 “부회장 추천 및 선임 권한은 회장에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jin6326@